

임실군, '독립유공자 삼혁당 김영원 일괄 자료' 도 문화재 된다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소재 삼요정(三樂亭)에 있는 '독립유공자 삼혁당 김영원 일괄 자료'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었다.

독립유공자 삼혁당 김영원(1853년~1919년) 선생은 1873년 해월 최시형이 청웅면 조항치에서 설립할 때 동학에 대해서 처음 접하였으며, 1889년에 동학에 입교하였고, 1893년 서울 북합상소, 보은집회에 참여하였으며, 1894년 동학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우금치에서 패퇴한 이후 약 6년간 회문산에 은거했다.

1904년 갑진개화운동, 1906년 청웅면 삼화학교, 전주 창동학교 등에서 교장으로 민족교육 운동에 전념하였고, 1907년 천도교 교령, 임실 순창 교구장, 1914년 임실교구장을 역임하였고,



1878년 9월 김영원 무성서원 도내 장의 임명장.



1894년 8월 김영원 동학 접주 임명장.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8월 26일에 옥중 순국했다.

독립유공자 삼혁당 김영원 일괄 자료는 36건으로 전적류 6건, 고문서 30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영원 선생의 유학지로서의 삶, 동학 접주로서 활동, 천도교 민족교육운동, 천도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1877년부터 1919년까지의 자료들이다.

특히 그는 1878년 25세의 젊은 나이로 무성서원 도내 장의, 1879년 도내 색장을 지내는 등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났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1883년 삼요정(三樂亭)을 지어 후학 양성에 힘썼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비암 박준승 선생이 선생의 제자이며, 1919년 3.1운동 당시 임실 교구장이던 한영태 의사가 선생의 제자이다.

특히 한영태 임실 교구장은 왜경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은 중 동료들의 인위를 위해 옥중에서 자결하는 등 의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영원 선생의 고손자로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김창식(선거리 거주) 현 천도교 임실 교구장은 최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천도교 임실교당>(2020.12.4.)을 임실군에 기부채납하기도 했다.

천도교 임실교당은 김영원 선생이 임실 교구장을 하던 1916년에 청웅면 양지리에서 임실을

상가리로 이전하여 1919년 임실지역 3.1만세운동 당시 서울로부터 전달된 기미독립선언서를 수령한 곳이자 임실지역 3.1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천도교 임실교당이 내년에 수리될 예정이어서 한 칸에 전시실을 마련하고, 독립유공자 삼혁당 김영원 일괄 자료를 비롯한 임실지역 천도교 및 3.1만세운동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여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김영원 선생의 자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된다면 향후 더 많은 근대 자료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근대 지역 역사인들의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지역 이야기기 풍부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임실군청 문화체육과(063-640-2315)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서 용담댐 완공 20주년 특별전 개최

내년 3월 27일까지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 전시

진안군과 국립전주박물관, K-water 용담댐 지사가 공동개최하는 용담댐 완공 20주년 특별전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 전시가 12월 28일~내년 3월 27일까지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최한 특별전의 순회 전시다.

특별전은 2001년에 완공된 진안 용담댐의 20주년을 맞이하여 댐 건설로 인해 변화된 마을과 사람들의 모습,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국민·지역의 자산이자 미래가치의 댐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자료로는 용담댐 수몰 전 마을과 지역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생활자료와 근현대문서를 비롯해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과 용담댐 건설역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 등이 전시된다. 특히 용담면 수천리 무덤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가위와 청자 등이 진안에서 처음 선보이며 주목되기도 한다.

진안군은 특별전 개최를 통해 진안의 역사문화와 이주민의 삶, 용담댐과 수지원의 가



수천리 출토 청자-국화무늬 주자.

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용담댐과 용담호가 안타깝고 그리운 추억으로 상징되는 과거를 넘어 희망차고 밝은 미래의 상징으로 새로이 기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도 대표 축제 '임실N치즈축제'

내년 14개 시군 대표축제 평가 2개만 선정... 1억원 인센티브 확보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무이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2022년도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임실군은 2022 임실N치즈축제가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치러진 도내 14개 시군 대표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표축제는 임실N치즈축제를 포함해 단 2개 축제만 선정됐다.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 2015년도에 처음 개최하여 다음 해인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전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또한 2020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다졌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축제로 개최되었다.

인플루언서들을 통하여 임실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랜선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요리체험을 하는 등 트렌디하고 차별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임실을 찾지 못한 관광객들이 손쉽게 임실N치즈축제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는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를 전시하였고, 포도존 및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제천위 추산 축제 기간에 16만 명이 방문하



임실N치즈축제가 2022년도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였고, 3억여 원의 판매액을 달성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축제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국화꽃과 야간경관조명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면서 11월까지 총 5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다녀간 것으로 계속되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확충하고 철저히 관리해 안전하고 볼거리 많은 축제로 만족감이 높았다.

군은 올해 축제의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하여, 내년 축제 일정을 진행하는 등 2022 임실N치즈축제 준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가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방역체계를 철저하고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융합을 통한 축제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체육계 공공기관, ESG 경영 실천 '한뜻'

태권도진흥재단은 27일 체육계 공공기관과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대한장애인체육회(회

장 정진완),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 김사업)이 뜻을 모아 체결하였으며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체육계 ESG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ESG 협력 사업 발굴', '체육계 친환경 캠페인 및 투명한 체육행정체계 구축'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계 공공기관은 친환경 스포츠 및 문화 구현 협력(E)과 지역 상생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 협력(S), 투명한 체육행정체계 구축(G)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체육계가 친환경 활동과 지역 상생 등 ESG 실천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앞장서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친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의 시행을 통해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